

觀念論點의 指摘[上]

張善明

내가 論코자 하는 것은 前番本紙本欄에 실린 『푸로레타리아[프롤레타리아]詩歌의 大衆化 問題 小考』라는 題로써 論한 朴完植君을 焦點삼으려한다. 藝術方面에 잇서서 門外漢인 나로서 누구에게 어찌한 論評을 加할가마는 文壇新人의 非行이 나의 鈍目에까지 거슬리움에야 어찌 그대로 默過할수잇스랴. 勿論 朴君으로 말하면 義州라는 地方에 筆者와 가티 居住하기 때문에 晝夜로 늘 相面됨은 事實이다. 그리고 朴君과 나 사이는 親近하기 때문에 서로 同席을 하게 되면 어떤 事物을 取扱함에 적으나 크나 가티 批判과 討議를 함도 事實이다. 그러면 今番 朴君이 主張한 小論에 들어서도 직접 朴君과 相面하여 誤謬된 點을 指摘하여 서로 批判할것이로되 새마춤 朴君이 집을 켜나 旅行中에 잇슬쑤더러 두 사람이 討議함보다 博識한 나로서는 여러 先輩들 압해서 朴君의 論文에 對한 解剖刀를 드는 것이 正當할가 하는 생각으로 論議를 提起케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藝術의 本質이랄지 展開策가튼것을 除外하고 單純히 朴君의 誤謬된 點 卽 다시 말하면 觀念論點만을 指摘하기로하겠다. 그리고 便宜上 朴君이 論한 句節을 引用하여 究明分析하겠다. 그는 처음 푸로詩歌에 對한 本質을 알에와 가티 論하얏다.

『萬若 푸로藝術運動에 잇서서 階級鬭爭의 意義를 除去하여 버린다면 그는 벌써 그의 存在的 理由부터 全然否定케되는것이다云云』 이것을 되푸리 하면 푸로藝術運動 그 自體가 戰鬥的 意義를 把持하얏다는말이다.

果然 그러타 支配的 政治權力과 抱合하여 沒落地位에 處하야잇는—또는 自己 몸뚱이만을 擁護하려는 政治的 野圖輩의 反動的 藝術이나 또는 그의 部門的 詩歌에 잇서서도 感傷的 純粹的인 그들의 詩歌와는 本質이 다른은 明確한 事實이다. 이와 가티 푸로詩歌에 對한 嚴然한 定義를 내린 朴君은 또 뭐라고 말하얏는가?

『上略……푸로藝術動이 鬭爭의 對象인 쁘르 藝術과 그를 生産하는 社會를

破壞하는 武器로서만 當面的 意義가 있는 것과 가티 우리 詩歌의 任務도 이곳에 있는 것이다云云』

하얏다. 于先 朴君은 푸로 詩歌의 本質과 푸로 藝術의 本質을 個別하얏다.

푸로 詩歌의 對한 本質을 論함에 잇서 서는 戰鬪的 意義 卽換言하면 階級 鬪爭으로서의 武器인 푸로 藝術을 肯定하야 노코 그다음 節에 잇서 서는 이것을全然忘却하고 觀念論的 見地에서 푸로 詩歌를 論하얏다. 詩歌의 本質과 藝術의 本質을 個別的으로 取扱할수업는 以上 어찌하야 君은 주작 업시 論하얏는가?

君은 容恕할수업는 觀念論的 誤謬를 犯하얏으니, 그것은 우리 藝術運動 鬪爭에 잇서서 썩르조아 藝術을 目標한탓이다. 쏘 가로대 『그를(藝術)生産하는 社會를 云云……』하얏스니

資本主義的 古陋한 秩序維持의 利害를 感하기에 急한 現社會가 썩조아 藝術만을 生産하는데 任務를 다하는 줄로 自認하얏는가? 보라! 生産 無組織 狀態—生産品 商品化 外國 商品 市場獲得—이러한 諸現象은 무엇을 招來하는가? 말할 것도 업시 帝國主義列强사이에 經濟的 必要에 對한 地盤爭奪의 大戰爭—經濟恐慌—勞働者搾取—이 可憎한 事實을 產出하는것은 的確한 事實일쎄더러 歷史가 證明치 안는가? 그러면 우리 푸로 藝術運動에 잇서서 一翼的 任務는 以上과 가티 不合理한 社會的 環境과 病的 社會가 갖고 잇는 內在的 諸矛盾을 解除하야버리고 푸로레타리아로 하야금 生活다운 生活을 攝取케하야 할 것이다. 簡單히 말하면 우리 푸로 藝術運動의 鬪爭的 對象이 썩르 藝術이 아니오. 썩조아 社會全體란 말이다.

이러함에 不拘하고 朴君은 藝術對 藝術鬪爭을 부르지 짓다. 藝術對 藝術鬪爭은 恰似히 觀念鬪爭에 不過하고 觀念對 觀念鬪爭은 一大矛盾이 아니냐? 이야말로 참 非 唯物的이며, 非맑스主義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萬一 君이 認識不足이라면 論及할 餘地도 업지만 君이 論한 그대로가 푸로 藝術運動의 本質이라면 決定的 觀念論者임을 免치 못할 것이다.